

로스쿨 교육의 미래



이창현

- 아주대학교 교수
-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 실무)
-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위원회 위원
-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변호사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변호사시험법의 부칙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하였는데,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4명이나 위헌의견이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또 권오곤 전 국제전법재판소 재판관이 논문평가 점수가 부족하여 로스쿨에서 국제형사법 강의를 맡을 수 없게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해 이론과목이 아닌 실무과목으로 강의제목을 바꾸었으면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서 웬지 씁쓸하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사시존치법안이 여러개 발의되어 있어서 사법시험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존치된다고 하여도 그 선발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조인양성은 이제 로스쿨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현재 로스쿨에서 법조인이 될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그저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아냥만 난무하고 있다.

2009년부터 우리나라에 로스쿨 교육이 시작되었고 필자는 2011년부터 로스쿨 교수가 되어 이제 6년 가까이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하여 오면서 보람도 많이 느꼈지만 깊은 회의에 빠지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어 10년 가까이 되었지만 로스쿨 교육이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다 변호사들의 취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신규 변호사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사법시험 응시자들의 상당수가 로스쿨 진학으로 진로를 바꾸었지만 실제 로스쿨 응시자들의 숫자는 거의 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줄어들지 걱정이 될 정도이다.

로스쿨과 관련하여 현재 너무 많은 문제가 놓여있지만 결국 핵심은 로스쿨 교육의 충실화에 있다. 여러 외부 요인들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로스쿨 교육만 잘 이루어진다면 대부분은 해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로스쿨 교육을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는 개별 로스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한 학년 최소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총 25개 로스쿨이 있고 한 학년에 많게는 150명이지만 40명 내지 50명의 미니 로스쿨이 너무 많다. 설립인가 당시에 신청 학교가 엄청났기에 교육지책으로 가능한 한 많은 대학을 받아들인 결과이지만 제대로 경쟁력있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원이 너무 적다보니 만성직자가 계속 되고 적절한 교수의 확보나 교육시설 마련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성화교육이나 전문화교육, 학부전공별 수업 등의 여유가 없고, 각종 로스쿨 내 학회 활동도 쉽지 않다. 총 정원 2,000명을 늘이지 못한다면 로스쿨의 통폐합이나 로스쿨에 법학전공자의 10~20% 의무선발제 도입에 따른 로스쿨인가 반납 등으로 조속히 해결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로스쿨 교수들의 강의역량을 키우고 학생지도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로스쿨 교수들도 다른 전공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연구논문을 작성하는 것에 가장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연구논문은 각 대학교에서 교수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연구비 지급 등으로 인해 교수들에게는 매력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로스쿨 평가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논문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연구가 되지 않고, 강의 자체도 소홀하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로스쿨 도입 초창기에는 로스쿨 교수들이 바짝 긴장하고 학생들에 대한 강의와 지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점차 그 열정이 줄어들고 다시 이전과 같은 일반적인 교수생활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로스쿨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은 논문으로 별로 의미가 없고 로스쿨 학생들은 당장에 전혀 알 필요도 없는 내용, 심지어 논문심사자와 이후에 관련 논문을 작성할 연구자만 보는 논문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 학생들은 교수의 강의보다 신림동 강사의 동영상 찾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로스쿨 학생들이 학기 중에도 위와 같은 동영상이나 신림동 강사의 책으로 공부한다면 로스쿨 교육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셋째로 로스쿨 교육의 충실화를 위해서도 변호사시험 합격생들에게 사법연수원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3년이란 로스쿨의 교육과정은 너무 짧고 그 기간 동안에 이론과 실무교육을 제대로 교육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함을 솔직히 인정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대한변협 등에서의 6개월 교육과정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흡수하고 기존의 사법연수원 교육내용을 잘 다듬어 로스쿨 교육과 연계된 실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판사와 검사가 파견형식으로 개별 로스쿨에서 교육하는 재판실무와 검찰실무 과목들도 폐지하고, 검사와 재판연구원의 임용절차도 변호사시험 합격 후로 변경하는 문제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하겠다.

로스쿨 교육은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로스쿨이 법조인양성 교육을 독점하게 되었다는 이 유만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한다.